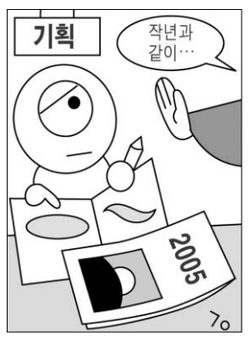
'절 일은 주먹구구식' 탈피하자

"사찰과 '함께' 혹은 사찰을 '대상으로' 일하기가 무척 어렵다."

불교계 안팎에서 일하는 재가불자라면 한 번쯤 했음직한 말이다. 최근 축제 전반을 기획하는 불교 유관 사업체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말이 나왔고, 또 2005년도 사찰 달력 사업에 여념 없는 한 기획사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말은 어김없이 나왔다. 대체 사찰과 '함께' 혹은 사찰을 '대상으로' 일하는 재가불자들은 왜 똑같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들의 하소연은 이렇다. 모든 일에는 기획이라는 게 빠질 수 없고, 또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일선 사찰들은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기획에는 새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새로움보다는 기존방식에 더 연연한다.



예를 들어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선 사찰들은 구태를 답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고집한다. 이로 인해 축제의 집중도는 떨어지고 비용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축제의 지속성까지도 위협하게 되고, 결국 지역문화 발전에서의 불교계의 입지도 좁게 만든다.

요즘과 같은 개성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달력만으로는 불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데 사찰 달력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그림과 자판으로 제작된다. 아니 사찰에서 그대로 만들어지기를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찰 달력을 찾는 불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들은 "맡겨 주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사찰 마다 높이 쌓아놓은 '구태'라는 담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불교계 언론을 통해 비쳐진 한국불교계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다. 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 문화,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 혜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 단체, 그리고 주요 시민 ·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축제 전반을 기획하는 대표이사나 일반 기획사 사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당혹감'과 '유감'이 교차되지 않을 수 없다. 불교계 언론에 나타난 한국불교계의 움직임은 주로 주요 종단과 사찰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불교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다른 말로 '주요'가 붙지 않는 사찰에서는 결코 역동적이지 않다. 아니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변화 수용 없으면 발전도 못해

전문화된 기획으로 효율 높여야

구태 답습은 사찰 역할의 축소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재가불자들을 도태시키는 최악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사찰 소임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강화하고, 자극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셈이다. ■ 오종욱(광주 서구 풍암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신도회관 세운다

중앙신도회, 50돌 맞아 내년 4월 선포식…각종 사업도

신도운동 50돌을 맞는 2005년, 중앙신도회(회장 백장기)가 신도회관 건립, 신도 윤리장전 정립, 신도 실천과제, <50년 백서> 발간 등 새 신도운동의 지평을 열 '조계종 신도운동 50돌 기념사업-신도운동 비전2050'을 전개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2월 2일 송현클럽에서 개최한 '신도운동 50년, 그리고 화합의 향연' 주제의 송년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앙신도회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신도운동의 조직화 실천화 문화화 사회화 비전화 공유화를 사업목표로 불교계의 재가 중심축인 신도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불교 신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50돌 기념사업 가운데 중앙신도회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사업은 단연 신도회관 건립. 내년 4월 신도회관 건립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도회관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신도회관 건립은 향후 신도운동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토대가 되는 조직화 사업이다.

신도들의 실생활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신도윤리장전 요강과 실천과제를 제시할 신도계율 선언도 중앙신도회가 주력하는 사업이다. 오계 또는 보살계를 수지한 신도들에게 좀더 현대에 맞는 신도윤리장전을 제시해 부처님말씀을 생활화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실천화 작업이다.

'불교타임캡슐' '불교비전페스티벌' '신도운동50년 불교운동 100년 학술세미나' 등 비전화 사업도 내년 4월 일제히 펼쳐진다. 신도운동 50년 그 질곡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50년 백서>도 발간된다.

신도공동체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고승 · 명사 초대 서화전, 승 · 재가 애장명품 전시회, 신도운동 50년 활동 사진전, 50돌 기념 바자회(아나바다 장터) 등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열린다.

국내 이웃 종교 및 계층간 교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도 벌인다. 가톨릭과의 가족교환 홈스테이(4회), 이웃종교성지교환순례(2회), 종교연대 공동캠페인, 학술연구 포럼, 지구촌종교인 평화대축제 등 이웃종교 연대사업을 준비한다.

남북한 통일 문화교류 사업은 평화통일을 위한 불교단체의 역할을 만들 사회화 사업에 포함된다. 금강산 평양 등지에서 남북불교도 공동행사를 진행할 남북불교평신도대회2005는 6월 15일경 개최할 예정이다.

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철도를 이용한 국토철도순례대행진 2005를 진행하고, 남북평화통일의 기원을 담아 8월중 불자 일반시민 등을 동참으로 남북평화통일기원탑도 조성한다.

중앙신도회 백장기 회장은 "신도운동 50년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통합신도회 행보의 첫발을 신도 공동체 구축으로 내딛고자 한다"며 "공동체 구축과 발맞춰 신행활동의 혁신을 일구어낼 것이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면에서 계속

종교단체간의 적극적인 연대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종교단체들이 각 종교별 내부 자정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종교간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천주교 열린신앙인사회학교' 등의 종교단체들이 구체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백찬홍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사회에서 종교자유와 평화를 논의한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단체들이 종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 '홀리클럽' 이란?

1996년 춘천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국내 21개 도시와 해외 2개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리클럽은 시도별로 조직 ·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홀리클럽 회칙은 "한국교회 초교파 크리스천 평신도 리더들의 직능단체 모임으로 법조계, 학계, 재계, 정계 등 각 계각층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국 각 가정과 직장, 사회 등 모든 영역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성시(聖市)화를 이뤄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홀리클럽은 '성시화를 위한 총체적 복음운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위 '3 · 3 · 7 운동'을 펼치고 있다. 즉 △교시협의회(교회와 시청단위 기관장) △교구협의회(교회와 구청단위 기관장) △평신도 중심 직능단체 홀리클럽(3)이 상호 자력, 조력, 협력(3)을 통해 한 도시를 그리스도적 도시로 통째로 변화시키는 7성(聖)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홀리클럽의 창립자인 전용태 前 대구지검장은 '뉴스파워'와 인터뷰에서 "성시운동은 현재 25% 선에서 머물러 있는 한국 교회 성장을 견인해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51%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75%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 정족수도 전체 의원의 3분의 2거든요"라고 밝혔다.

"특별교구 설치 위해 노력"

군승의 날 기념법회…김갑영 법사 등 총무원장상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1968년 5명의 군승이 최초로 임관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군승의 날을 맞아 11월 30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제36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군불교위원회 출범 3주년을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포교여건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전법도생의 사명감으로 힘차게 정진해온 군법사들에게 종단을 대표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하며 "군포교를 활성화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특별교구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최고상인 총무원장상에는 김갑영 법사(육군 교육사령부)와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변상수 씨(연천군청), 이시찬 대전 군불교진흥회장이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 등을 비롯해 현 · 예비역 군승, 군불교지원단체 회원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국제포교사 합격자 영어 일본어 등 26명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11월 30일 제 20차 포교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 9회 국제포교사 선발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는 영어 분야에 현묵 스님 등 22명, 일본어 분야에 김경희 씨 등 4명이다.

■영어 분야 : 현묵, 도승, 영조, 근후, 철영 스님, 김승기, 강홍길, 이성심, 최준서, 이호녕, 김재순, 변동윤, 최영달, 김보영, 최정선, 이성상, 이지희, 안송이, 임대성, 구윤임, 김무신, 나승혁

■일본어 분야 : 김경희, 최현모, 요네까와 준꼬, 나영희

강지연 기자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1차 교안 나와

조계종 포교원, 신도용 내년초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지난 2월부터 신도수행연구팀을 구성해 개발에 몰두해온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의 1차 교안이 나왔다.

포교원은 1차 교안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신희섭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습기억현상연구단), 최훈동 원장(한별정신병원), 박영재 교수(서강대 물리학과), 이헌주 교수(제주대 공과대) 등을 자문단으로 구성, 12월 8일 오후 6시 포교원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현대인에게 맞는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개발과 선 수행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은 전국 선원장 스님의 감수와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교안>은 각 주제별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수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포교원은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교안>이 발간된 후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교안을 홍보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지도 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자 과정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동국대학교병원 · 한방병원' 대외명칭서 '불교'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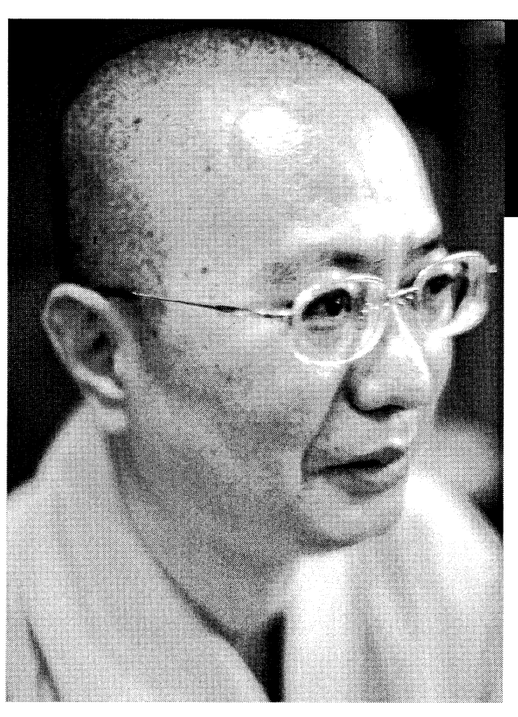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현해)는 11월 29일 제204차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실시한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적인 공식명칭은 기존의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으로 하되, 대외명칭은 불교를 뺀 '동국대학교병원 · 한방병원'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했다. 관련기사 15면

이사회는 또 강남병원의 현재 인력과 시설을 일산불교병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원' 산하인 강남병원을 '의무원' 체제인 일산병원으로 이관할 경우 발생하는 종사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강남병원이 가진 동국대 의료원의 불교계 위상 문제 등에 대한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사회 감사에는 성월(중앙종회의원), 상운(전 중앙종회 사무처장) 스님이 선임됐다. 조용수 기자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출간2주만에 교보베스트10위권 진입(종교부문)!



이판사판 화엄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삶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쏙쏙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난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헤럴드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쟁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 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 1957년 태어나 중동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골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사佛事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게송 풀이
성법스님 지음/신국판/값 11,000원/정신세계원 출판국

이판사판理判事判 :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fax.02-747-7034